

안양시, 문화예술분야 총괄 재단법인 설립 추진

[경기방송 = 현준호기자] 안양시의 문화예술분야를 총괄하는 재단법인 설립이 가시화됩니다.

시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안양시청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성결대 김광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는 안양지역 시민연대 최병렬 대표와 청소년수련과장을 지낸 백석대학 김영호 교수와 김대규 문인협회지부장을 비롯해 김성균 안양.의왕 경실련사무처장, 경기문화재단 박희주 경영지원실장, 전 시의원이었던 임종순 민예총 안양지부장 등 9명의 토론자가 참석합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두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날 거론된 다양한 의견들은 재단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그동안 안양예술공원 알바로시자홀 운영과 안양시민축제의 내실 강화, 유유산업부지 복합문화전시공간 추진, 홍보브랜드 창출 등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특성을 살리고, 운영관리 주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분야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저작권자 © 경기방송(www.kf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준호(hyunjh@kfm.co.kr)
작성 시간 : 2008.07.08 13:36:49